

투데이 칼럼

소멸의 경고음 앞에 선 정읍, '행정의 시간' 이 왔다

“정읍에는 예식장 하나도 없다.” 최근 정읍 시민들 사이에서 화자되는 이 말은 단순한 생활 불편에 대한 토로가 아니다. 그것은 한 도시가 인간의 생애 주기를 온전히 품어내고 재생산할 수 있는 '자기 완결적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뼈아픈 경고음이다.

지방소멸은 어느 날 갑자기 행정 구역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다. 병원이 먼저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가 잦아들며, 인생의 가장 찬란한 의례인 결혼식이 사라지는 일상적 붕괴로부터 시작된다. 소멸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곁으로 스며들고 있다.

정읍과 같은 농촌 소도시가 겪는 위기는 우연한 불운이 아니다. 약국과 의원의 폐업은 '아플 때 갈 곳이 없다'는 최소한의 생존 안전망이 무너진다는 신호다. 이어 소아과·산부인과·예식장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사라지면, 미래 세대는 이 도시를 자신의 삶을 설계할 선택지에서 배제한다.

학교와 대중교통마저 흔들릴 때쯤이면, 남아 있던 주민들조차 도시를 떠날 준비를 시작한다. 이는 단순한 인구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도시라는 유기체가 기능을 멈추는 과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할 본질과 마주해야 한다.

예식장, 산부인과, 소아과는 수익성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사치재가 아니다. 한 도시의 존속을 떠받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다.

문제는 이 시설들이 그간 민간 영역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고, 시장



정 상 섭
전 정읍시의회 차행정위원장

(市場) 논리에 따라 수익성이 약화되는 순간 가장 먼저 철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로, 상하수도, 전기처럼 사회 유지에 필수적 기능을 공공이 책임지듯, 시민의 생애주기를 지탱하는 서비스 역시 일정 수준까지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인프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도시 기능이 무너짐을 멈추고 회생의 길을 찾는 국내외 도시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도야마시는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경계해 안정한 뒤 도시 구조를 전면 재편했다. 이른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전략이다. 모든 동네에 병원을 두는 대신, 전철 노선을 중심으로 의료·복지·상업 기능을 집약해 시민 누구나 15분 안에 핵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장(市場)에 맡겼다면 사라졌을 기능을 행정이 '공간 설계'라는 도구로 떠안은 사례다.

독일의 라이프치히 역시 마찬가지다. 한때 '유령 도시'로 불리던 이곳은 빈집과 폐공장을 철거하는 데

신 공공이 개입해 청년과 예술가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했다. 단기적인 임대 수익 면에서는 비효율적일지 모르나,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생활(관계)인구'를 유입시킨 공익적 성과는 막대했다. 도시를 살린 것은 거창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공공의 전략적이고 세밀한 개입이었다.

국내에서도 답은 이미 실험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민간이 포기한 분만 의료를 지자체가 직접 맡아 '공산부인과'를 운영한다. 적자가 불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신뢰를 지키는 것이 지역 존속의 최소 조건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이 수익성이 아닌 시민의 '존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내린 결단이다.

강원 정선군 또한 관광을 일회성 소비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전략으로 전환하며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다.

정읍의 조건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도심을 관통하는 정읍천과 이를 감싸는 아양산, 초산, 죽림산 등

은 그 어떤 인공적인 도시도 흉내 낼 수 없는 정읍만의 콤팩트 시티 자산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천혜적인 산천(山川)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과 도심 속 자유의 정원을 발견시켜가고, 최근 행정이 구도상에 매입한 공공 및 민간시설들에는 인구를 시대로 유입할 회의, 의례, 공연 등 복합적 기능을 집약하는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

민간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공공이 '최소한'이라도 떠안는 것, 그것이 소멸 대응 행정이 맡아야 할 시대적 역할이다.

지방소멸 대응의 본질은 인구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아니다. 그 도시 안에서 시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 수 있는가의 문제다.

아플 때 달려갈 병원이 있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으며, 결혼이라는 삶의 승고한 의례를 내 고장에서 치를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가. 이 최소한의 조건을 시장 논리에만 내맡긴 도시는 반드시 먼저 무너진다. 파도의 방향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을지라도, 배의 키는 조정할 수 있다.

정읍이 가진 자연과 공간, 그리고 행정의 책임을 다시 총총하게 엮어내는 일, 그것이 소멸을 늦추는 수동적 방어를 넘어, 정읍을 작지만 '강소 도시'로 되살리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소멸은 조용히 오지만, 우리의 대응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정읍 사람들이 던진 '예식장 없는 도시'라는 화두에 이제 행정이 답할 차례다.

사실

우리 국민에게 공개되는 북한 노동신문

그동안 특수 자료로 분류되어 일 반의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노동신문이 1월부터 국민에게 공개된다. 특수 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북한인의 실상을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정보 개방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소련 '프라우다'를 많이 모방했다. 노동신문을 만든 사람들은 소련 교포 출신들이다.

신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소련 정부에서 북한으로 파견되고,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언론, 북한 통신문을 만들었다.

구소련 신문을 보면 선전이 많이 있었다. 주로 자본주의 나라에서 노동자들 어려운 생활 등의 보도가 많이 있었다.

노동신문 사람들의 관심 대상은 지진, 큰물, 여러 가지 자연 재앙 관련 보도다. 셋째는 마약을 비롯한 범죄 활동이다. 적대 국가, 나쁘게 생각해야 하는 국가이면 범죄 문제를 그냥 보도하고 있다.

약 20년 전부터 북한 언론은 남한을 보도하는 접근(방식)을 많이 바꾸었다. 1990년대 말부터 북한 사람들은 몰래 남조선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있다.

중국으로 불법 노동이민자로 갔다 온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조선족들과 만나서 남조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의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북한민'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했던 '탈북민'은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으로 변경 논의가 계속 제기돼 왔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 의 부작용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지난해 1~9월 처방받은 10대 이하 환자 수가 이미 2024년 전체 10대 이하 처방 환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 지난 달 호에 따르면 작년 1~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0대 이하 남성 환자는 11만3,263명이었다.

2024년 전체 기간 이 약을 처방 받은 10대 이하 남성(10만7,267명)보다 이미 약 6% 많다. 2021년부터 처방받은 10대 이하 환자 수는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각성을 높이는 의료용 마약류다.

ADHD의 주요 치료제로서 의사 처방 하에 질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과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진 강남, 서초, 분당 등 지역에서 이 치료제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오남용 할 경우 두통, 불면증 등에 이어 환각, 망상, 자살 시도까지 나타날 수 있어 청소년 복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대우화학연구소에서 메틸페니데이트 불법 광고 및 판매를 단속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는 등 오남용 방지에 주력해왔다. 올해도 식약처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눈 쌓인 거리 지나는 그린란드 주민



19일(현지 시간) 그린란드 누크에서 한 주민이 눈 쌓인 거리를 지나고 있다.

"트럼프는 환영 안한다"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에 반대한 시위대가 '트럼프 반대' 팸플릿을 들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